

청소년 유해도서의 출판유통 실태

대부분이 지하출판...거리에 범람해 아무나 쉽게 입수

「사모님, 제비 한마리 키우세요」 「밤의 열기 속에서」 「딱 한번만이에요」 「달콤한 신음이 죽음을 부른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부근의 '노천서점'에서 무시로 발견되는, 제목만 봐도 대충 그 내용이 어림되는 음란의 설도서의 대표적 '걸작'들이다.

흔히 '빨간 책'으로 속칭되는 이들 음란의 설도서가 요즘들어 부쩍 극성을 떨면서 사회 문제화하고 있다. 흔히정사쯤은 오히려 점잖은 편에 속할 정도로 음란과 외설의 강도가 대담하게 에스컬레이트되는 낯뜨거운 내용도 문제지만, 그것들이 거리의 좌판에 나왔음으로써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자유화와 개방의 길목에서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이들 음란외설도서가 예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대량으로 제작되고 조직적으로 배급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최근에는 만화에 있어서도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이른바 '성인만화'가 갑작스레 폭주,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의 한 주범으로 지목된다. 일반의 감시망을 벗어난 대본소라는 독특한 폐쇄공간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점에서 이들 음란성 저질만화의 악영향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음란외설도서와 저질만화가 그 제작과 보급에서 지하출판적인 성격이 짙다면,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의 또다른 악역으로 꼽히는 주간지 등의 일부잡지는 적어도 겉으로만은 정상적이다. 그러나, 막상 그 속내에 이르면 역시 짙은 선정성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잡지일반의 매스미디어적 속성과 결합돼 악영향의 전파범위가 보다 광역화하는 문제를 지닌다.

음란도서 출판은 덤핑서점과 깊은 관련

'거리의 마약'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독버섯처럼 쪼먹는 음란외설도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팔리는지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등록도 안된 정체불명의 지하출판사들에서 몰래 발행해서 그들 나름의 철저한 점조직을 통해 역시 은밀하게 배급되기 때문이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음란외설도서가 거리의 리어카나 좌판에서 실제로 독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는 유

지하출판된 음란외설도서를 비롯,

사전심의도 받지 않은

불량저질만화 및 주간지 등의

선정적 성인오락지가 범람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공공연한 거리의

노천서점이나 신문가판대,

혹은 일반의 감시망을 벗어난

대본소 등을 통해

판매되고 유통되고 있어,

그 해악이 거의 무방비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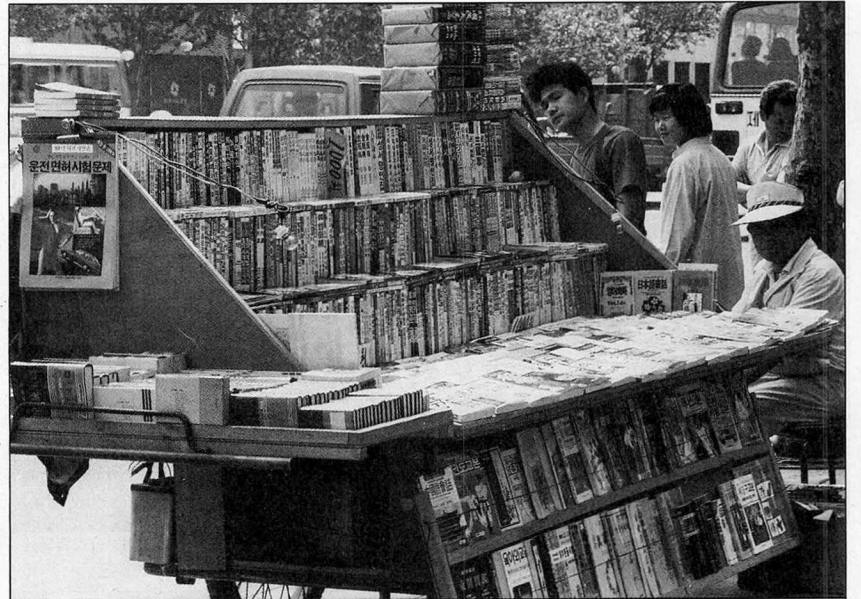
문제를 갖는다.

통의 최종단계뿐이다.

따라서, 음란외설도서 출판에 따른 정확한 자료나 통계수치는 있을 수 없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5~60개의 지하출판사가 음란도서 출판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공부나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측의 추산이다. 이 중 3분의 1에 이르는 20여개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대부분이 종로 5,6가 및 청계천 7,8가 일대에 밀집해 있다.

이 일대는 원래 무협지시장 및 덤핑서점가가 광범하게 형성돼 있는 곳으로 '출판 블랙마켓'의 온상이 돼왔는데, 여기에 음란도서를 찍어내는 지하출판사들까지 더부살이하고 있는 것이다. 음란도서 출판은 이 중에서도 특히 덤핑서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지난 4월 음란도서 출판으로 출판사 등록이 취소되고 대표가 구속된 '한국출판문화공사' 등의 경우는 덤핑서점과 음란도서 출판이 어떻게 유착돼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음란도서를 출판한 한국출판문화공사와 그 판매총책인 국제서점의 대표가 동일인으로 나타난다. 덤핑서점이 음란도서의 보급뿐 아니라 그 제작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란도서의 출판은, 흔히 덤핑서점을 겸하는 위의 한국출판문화공사는 출판사가 일차적으로 원고 및 자금의 조달을 담당하고, 충무로 일원의 덤핑인쇄소에서



음란성 저질도서는 대개 덤핑서점 등에서 지하출판돼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부근의 '노천서점'을 통해 판매된다.

인쇄에 필요한 원판 및 책자를 제작하며, 이를 다시 덤핑서점이 인수하여 전국의 약정된 소매점으로 배포하는 유통경로를 갖는다.

이와같은 과정은, 그러나 철저히 베일에 가려있어서 한국출판문화공사처럼 법적인 제재를 받아 그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가 극히 드물다. 우선 출판사 명의부터가 가공이거나 아예 없고, 있을 경우에도 주소지가 허위 기재되거나 생략돼 있다. 중간상을 통해 소매상으로 책이 배급될 때 또한 전화주문에 의한 현금판매가 대부분이어서 수급이나 반품에 따른 소재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다.

제목 알려주며 특정 책을 '찾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출판, 유통되는 음란외설도서는 크게 세종류로 갈라볼 수 있다. 일본 및 미국 것의 번역이 대중을 이루는 음란소설, '성의학'을 간판으로 내건 「부부침실학」 등의房中術 관계도서, 그리고 외국잡지를 적당히 복사, 편집한 「사진으로 보는 여체의 비밀」 등 음란화보집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각 적게는 3,000부에서 많게는 10,000부가 넘게까지 발행되는 등 전체 출판량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학습참고서나 전문서적을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출판되는 출판량을 오히려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측의 추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음란도서가 노천서점

등의 소매상에게 배포되는 과정은 은밀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독자에게 구매될 때는 완전하게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군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원과 함께 음란도서의 주된 독자층으로 알려져 있는 학생 및 근로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이 용이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적극적인 구매의사는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눈에 띈다는 점에서 구매욕을 자극하고 유흥할 소지도 충분하다.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具賢書부장의 말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음란저질출판물 접촉을 차단할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관계당국에 의한 수시 가두단속같은 사후약방문이 현재 음란도서출판에 취해지고 있는 제재조치의 고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음란도서들은 거리에서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는 유통상의 특성으로 인해 그 해악이 청소년들을 향해 전적으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이즈음에는 좌판에 진열돼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를 단순히 고르기보다는, 특정 제목을 지목하여 음란도서 나름의 베스트셀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음란도서의 독서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는 중고교생사이에 특히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것이 노천서점 소매상들의 말이다.

한편, 이렇게 해서 구입된 음란도서는 여타의 정상적인 출판물에 비해 그 돌려읽는 빈도가 훨씬 잦은 데도 문제가 있다. “음란도서의 독서행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도 그것이 유통된다는 점인 것 같다”는 것이 서울 D고교 羅모 교사의 지적이다. 즉, 그 속성상 ‘장서’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음란도서를 여럿이서 돌려읽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음란도서는 그것을 직접 구입한 학생에게는 ‘1회용 책’일 수밖에 없지만, 구입자의 손을 떠나서는 ‘多回의’인 독서물이 된다. 따라서, 음란도서 한권의 해악은 단순히 그 한권만큼의 분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집단의 크기에 따라 10배, 20배로 증폭된다는 데 심각함이 있다. 음란도서는 한권당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책일 수 있다.

대본소체제가 악영향의 진원지 돼

만화의 경우도 사정은 대개 비슷하다.

만화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고상태로 사전심의 받는 유일한 출판물로 공식적으로는 음란저속이 발붙일 틈이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심의 받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만화에서조차 이른바 ‘성인만화’라는 미명 아래 폭력과 성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1987년 한해동안 성인 및 청소년만화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수정지시가 모두 2,564건에 달했음이 그 좋은 방증이라 할 만하다.

하물며, 사전심의를 무시한 채 아예 지하출판된 만화들에 이르면 거의 포르노물에 가까운 정도다. 매페이지에 잔인한 폭력, 강간, 집단혼음, 동성연애가 표현되는 등 외설적인 색소묘사로 일관돼 있다. 이들 불법외설만화는 대개 가공의 작가를 내세워 대사만 번역한 일본만화의 복사물들인데,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간 7천만부에 이르는 전체 만화유통량의 30% 내외를 불법외설만화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만화의 복사물이 아닌 경우도 대개 고료가 저렴한 습작기의 무명작가를 동원, 스토리 전개도 없이 독자들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저질만화를 찍어내는 실정이다.

한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란저질만화는 그 대부분이 우리나라 만화유통의 주된 경로인 대본소체제를 통해 소화된다. 가판대를 통해 소화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역시 만화

유통에 관한 한 아직까지는 대본소체제가 압도적이며, 이 대본소체제가 만화가 끼치는 해악의 진원지가 돼왔다.

우선 대본소체제는 현금수급과 자금회수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출판사측에 큰 이득이 되는 ‘알짜배기 장사’로 알려져 있다. 찍어내기만 하면 단3일 안에 전국의 도,소매상에 깔리는 안정된 시장성, 그리고 광고비나 영업비가 따로 필요없는 현금판매의 독점적 이윤 등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게다가, 흔히 만화출판사는 전국적으로 50여개가 넘는 중간도매상인 총판에 대해 계약으로 체결된 월정 공급량을 이행토록 돼 있어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기 십상이다.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이미 음란외설을 비롯한 저질상업성이 온존할 여건이 구비되어 있는 셈이다.

대본소체에서 볼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대본소는 서울지역에 3,000여개소, 지방에 7,000여개소로 전국적으로 10,0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로이 허가 및 시설기준이 없이 언제 어디든지 임의개설할 수 있어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시설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열악하다. 따라서, 대본소들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이른바 ‘인기만화’의 확보에 존립의 사활을 걸게 된다. 예컨대, 총판으로부터 한권에 1,000원을 주고 샀다고 할 때, 권당 대본료 100원을 감안하면 10명이 넘는 손님이 찾는 만화들만이 대본소의 이익으로 떨어질 수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대본소체제는 만화의 1차적 선택권을 대본소주인들이 장악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만화유통이 철저한 상업성의 원리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게 돼있다.

이런 측면들이 만화의 주 독자층인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소로 작용함은 물론이다. 특히, 80년대 초반 이후 두드러진 아동만화와 청소년 및 성인만화로 장르분화를 기화로 이같은 양상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역량있는 ‘성인만화작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본소 등의 압력으로 성인만화의 수요가 급증한 데 문제가 있다”는 모 만화전문지의 S기자는 “그러다보니 종래의 아동만화적인 발상과 골격에 섹스와 폭력만을 가미한 것이 성인만화로 행세하게 돼 어떤 면에서는 아동물과 성인물의 구분 자체가 애매해져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장르분화의 불철저함이 그 장르분화에 따른 독자층의 차별화를 불가능하게 만

들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저질불량만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성인용 오락지의 선정적 ‘폭로주의’

청소년유해도서의 하나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비거리가 돼온 것으로는 주간지를 비롯한 일련의 성인잡지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대개 정식으로 등록되어 정상적으로 출판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흔히 ‘폭로주의’로 지칭되는 내용상의 선정성, 그리고 그것이 가판대를 통해 대량살포된다는 점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시콜콜한 ‘섹스스캔들’ 기사로 지면을 가득 채워온 기왕의 주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음란유머나 선정적인 누드사진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월간지들이 덩달아 기승을 떨며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예컨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보면, 주간지의 경우 지난해에 199건, 금년 4개월 동안에 67건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데 반해, 월간지는 지난해에 187건, 금년 4개월 동안에 71건의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금년 들어 월간지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제재 건수의 대부분을 창간된 지 얼마 안된 「간간다이제스트」 「제5세대전강」 「유머펀치」 「스페셜」 등이 차지하고 있어 최근 일련의 오락잡지들이 그 오락성을 어느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왕의 주간지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매호 10만부 이상씩 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주간지 또한 최근에 창간된 일부 월간지들과 더불어 여전히 청소년 독서환경을 해치는 주범노릇을 하고 있다.

이들 일련의 오락성 성인잡지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대개 가판대를 통해 유통된다. 일반 종합지나 여성지가 서점에서 판매되는 데 반해, 이들은 신문가판대에 ‘엠펙’ 살고 있다. 말하자면, 아직 서점으로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무허가 노점상을 통해 팔리는 음란외설도서나 대본소체제 속에서 소화되는 만화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인된’ 유통체제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개방된 ‘공인성’이야말로 그것으로부터 차단돼야 할 청소년

독자의 접촉을 무차별하게 유인하는 가장 깊은 함정이다.

실제로 이들 잡지의 주된 독자층 역시, 그것이 성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가판대 상인들에 의하면, 「TV가이드」 및 스포츠주간지와 더불어 이들 성인용 오락지의 단골고객은 청소년들로 나타난다. 역이나 터미널에서 여행자들에게 팔리는 것을 제외하면, 어른들은 ‘체면상’ 직접 사서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청소년잡지’로 일컬어지는 잡지들에도 이들 성인용 오락지의 영향력이 깊게 침윤되는 현상을 빚는다. 즉, 가판대에서 개방적으로 판매되는 성인용 오락지들에 의해 청소년들의 의식과 취향이 길들여지고, 그런 길들여진 의식과 취향에 청소년잡지들이 영합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성인용 오락지의 경우,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제도가 현실적으로 전혀 제공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그 악영향이 보다 저변에까지 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소년들의 유해도서 접촉을 차단하려면

위에서 보는 일련의 청소년 유해도서가 마구잡이로 유통되는 일을 근절할 만한 대책은 현재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출판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는 당위에 따라 윤리적 판단과 법적인 제재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 되기 십상이어서 말 그대로의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그같은 유해도서의 잠재적 독자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유통구조로부터 여하히 분리시키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출판인의 양식’이라는 ‘잘 작동되지 않는 정화장치’에만 내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YWCA 등이 기왕에 벌이고 있는 ‘만화모니터’ 활동 같은 유해도서에 대한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감시제도가 보다 활성화하고, 선진국처럼 성인용출판물은 우편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법제화하는 등의 노력이 앞으로 기대되고 하겠다.

—강철주 기자